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제64호 2011년 12월 21일 수요일

APOLLONIA

지리학전문대학원 **신문사**

창간: 2002년 9월 12일 발행인: 송근래 주간: 최갑식 편집장: 김창수

주요기사

페이지	주요기사	면면어울
2면	2011 APOLLONIA COVER	2면면어울 2면면어울 4면면어울 2면면어울
3면	9대 대학원 2011 APOLLONIA COVER	3면면어울 3면면어울 4면면어울 2면면어울
4면	9대 대학원 2011 APOLLONIA COVER	4면면어울 4면면어울 5면면어울 2면면어울
5면	2011 APOLLONIA COVER	5면면어울 5면면어울 6면면어울 2면면어울
6면	2011 APOLLONIA COVER	6면면어울 6면면어울 7면면어울 2면면어울
7면	2011 APOLLONIA COVER	7면면어울 7면면어울 8면면어울 2면면어울

29대 학생회 '공감' 당선

학생회장 심재용 부학생회장 김성용



▶ 2면면어울 / 2면면어울



▲ 29대 학생회장 심재용(좌), 부학생회장 김성용(우)

지난 12월 2일 지리학전문대학원 지리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 선거에서 심재용 학우가 최다표로, 김성용 학우가 부회장으로 당선 되었다. 단독으로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총 231명의 유권자 중 219명이 투표하여 94.8%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찬성 193, 반대 26, 기권 1로 88%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29대 학생회 '공감'은 '참에 생각하고 참에 행동하는 학생회'를 목표로 학생회가 정식으로 학우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더 나은 학습환경을 위해 노력 할 것을 약속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첫 번째, 현충실 시 스태프와 선�후대간을 1:1로 연결하여 신입생들의 빠른 학교 적응을 유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보가 없어 놓이기 쉬운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경영실 기법, 휴게실 개선, 식당 오너님들을 더 나은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복지혜택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Stone 홀로, 지리학전원생간 정보교류, 동성로 우편 및 할인혜택 확대 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선�후대간 의견을 쉽게 교환 할 수 있는 저서물을 만들어 대청문 스톱과 공간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주요 부서는 연인의 기쁨이 없어 29대 학생회의 기차1구, 기차2구, 사무국 미디어구, 복지구에서 29대 학생회의 기차구, 대학협력구, 사무국, 미디어를 보구, 여성-복지구로 변경했다. 기차구는 다양한 행사와 기차 및 전통, 대학협력구는 인형 및 장소 삼각형, 사무국은 재정관리, 미디어를 보구를 각종 행사 제작 및 사진 촬영, 여성-복지구는 교수 학생 시설을 관리 및 지원수령을 담당하게 한다.

2011 대구 치과 의사 학술대회 및 송년의 밤

▶ 2면면어울 / 2면면어울

지난 12월 3일, 대구광역시 치과 의사회(회장 박종호)가 주관한 '2011 치과 의사 종합 학술 대회 및 가족을 위한 회원 친화 송년의 밤' 행사가 호텔 인터콘티넨탈에서 열렸다. 12시부터 시작 된 이번 행사는 오후 시간동안 진행될 학술 연재 발표와 저녁 시간동안 있었던 특별공연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원 및 가족 1천여명과 많은 귀빈들이 참석해 거창에 성공하게 되었다. 오후 6시에 시작되어 진행된 30여개 업체에 의한 제과제빵과 전시회 또한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었다는 평이었다.

이번 송년회 및 행사는 치과 의사와 일반인 모두가 즐길 수 있었던 것은 치과 의사들과 예비 치과 의사들이 공연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이다. 총 6회 공연에서 무지함 전문 국산 초이스 세이브 제작자 이선 공창희 선생님이 '기차'를 공연해 주셨고, 2011년 12월 9일의 공연을 출연진 모두 치과 의사와 예비 치과 의사들만 참석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했다. 무대 감독, 조명, 분장, 음향까지 30여명의 전문 스태프들이 동원되어 총 6회 공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공연 내용은 또한 방송댄스, 악스온, 공연이뿐만 뿐 다채로운 개러주어로 진행되었다. 늦은 밤까지 공연이 진행되었음에도, 거의 대부분의 관객들이 자리에 앉지 않고 공연이 성공적이었다는 평이었는데 특히 이번 학술대회의 초청연사였던 지주대학교 교직원들과 학생, 학부모 교수님들 "치과대학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바쁜 와중에 특별히 연수하였음에도 학생도 높은 공연을 보는데 것에 대해 너무 놀랐다"라고 전했다.

이번 송년회 및 공연은 "마음이 따뜻한 치과 의사", "선후에 특별히 정해주시는 치과 의사"란 컨셉으로 문화예술과 관광이 있고 조개가 많은 치과 의사들과 치과대학 재학생들이 만들어낸 뜻깊은 행사였다. 이번 공연을 통하여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고 참에 만들 어진 행사를 통해 출연진과 관객 모두가 문화적 마인드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히, 동거제와 협동점, 관광여행은 이번 공연을 위해 특별하게 마련된 것으로 졸업생과 재학

생들이 연수기간부터 참여하여 아름다운 화합을 만들어 냈다. 관광여행에 참여했던 2학년 일행이 "학우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졸업하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는 짧은 기차였다. 다. 문화적 교감은 물론이고 그 외 전례에 관한 이야기 등 다른 참은 졸업생도 응울 수 있어 더욱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공창희 선생님은 "문화적 마인드를 가진 치과 의사들이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뜻을 모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이번 공연을 통해 모두가 마음 이 따뜻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보았을 때 공연은 대성공이었고, 이번 공연이 앞으로는 많은 문화 예술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송년회와 함께 진행된 특별공연 현장



송근배 치전원장을 만나다

취임 1년, 그리고 앞으로 1년...

홍길영 / 편집 조수

지난 8일, 우리 대학의 원장님과 인터뷰를 가졌다. 바쁜 와중에도 활을 내어 기자들을 반겨 맞아주셨는데, 취임 1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 학교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한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원장님과의 일문일답을 함께 따라가 보자.

Q. 벌써 치전원장에 취임하신지 1년이 다되어간다. 그간 학교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성과들을 물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소소하게 바뀐 학교 풍경

취임 1월 26일에 취임을 했으니 아직 1년은 아니고 거의 11달이 다 되어간다. (웃음) 내가 취임하면서 내린 공약은 우리치과대학을 세계 100대 명문대에 들게 하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이 사실은, 학문, 경제, 보건의 분야에서는 입지전지 무리에게는 없는 것들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로 한 일은 우리에게 없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이었다. 학생들 학습환경도 학기 불편한 것이 없나 그런 것들을 요즘 논해 들어왔다.

예를 들면 학교로 들어오는 길도 없고, 숲길 사설도 많이 남았었다. 물론 잔디 정원님들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예산을 조금씩 나누어 확보해주셨었다. 그걸 이번엔 바꾸게 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0년이나 되어가는 우리대학이 역사 박물관이 없었다. 공간이 있어서 자료들도 모으기 마련인데 그런 것이 없어서 자료도 팔려서 갔었다. 이 박물관 자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빛이 나고 모으려면 모으실수록 이 큰 걸사를 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체육단원실이다. 원래는 공청과 오물 보관 용도로 쓰던 공간인데 너무 쓸쓸하고 많이 찢어졌다. 이 작은 용용도가 좀 벌어지는 것 같지만 차기 학생회장과 이어져서 좀 더 용용도가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 외에도 작은 것 같지만 도서관 바닥도 보르도라 밥소리가 나는 것에서 다른 것으로 바꾸었고 송사내에도 앞으로 국사에 도입할 일상생활 사물을 대학에 갖추게 되겠다.



▲ 새 디자인의 전사물들

Q.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기자재나 시설들이 많이 바뀌었다. 그만큼 재원이 많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발전기금이나 예산들을 어떻게 확보하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나는 앞에서 없기보다는 여기저기 뛰어들면서 일을 했다. 역시 박물관은 예산 총커뮤 행사 때마다 세 기수가 방문해서 발전기금을 기부하는데 그 분들의 도움과

본부의 예산을 보조 받아 만들었다. 그리고 체육단원실 같은 경우는 학생회 지원과 사회 복지회 지원과 대학본부 체육진흥센터도 7백 넘게 찾아가서 예산 예산으로 만들었다. 전적으로 올 한 해는 우리 내부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다. 대학본부도 많이 찾아오고 동맹계 동맹 가까운 주변으로 사들임을 많이 만났다. 물론 나 혼자 한 것은 아니다. 내가 밖으로 뛰어나는 동안 박희근 학과장이 안성철을 잘 확보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내란은 밖으로 좀 다니면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한다. 어떻게든 재원을 마련해야 앞으로 우리 대학이 할 일들을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나?



▲ 송근배가 역사상 처음 받은

Q. 학생들도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해 신적적으로 안내유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거나 오해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다.

나도 학부모니까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한다. 봉사란 것이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 한다.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를 위해 해주길 바라지만 아직 어린들은 그런 능력이 안되거나 학부모님께 강요하게 무관용 보냈다. 원래는 전체 학부모에게 보낼지도 생각을 했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부에게만 보냈던 것이다. 이런 신질생무라는 전체 학부모를 모시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많은 분들이 그 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올해 7000만원 정도가 모였다. 이 돈은 전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쓸 예정이다. 4학년 때 해외 봉사활동을 나갈 계획이 거뒀을 거라도 보기가 되지 않겠나? 원래는 이 재원을 기존 차익적 목적금으로도 쓸 예정이다. 현재 DCS(다산) 회장 예산이 없었다. 이런 예산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로인간 발전기금헌환하는데 그런 등의 성실함을 올릴 예정이다.



▲ 학교발전기금 헌환용

Q. 원장에 취임하기 전에도 학생들과 사적인 자리를 만들어서 소통을 즐기셨는데 학생들과 대학을 하면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나는 원장이 치과대학이다. 항상 치과대학이 잘되었으면 좋았고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치과대학은대학에서 하면서 학생들과 원장은 치과 대학의 전공분야라고 생각이 나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기우였는데 같다. 여러분들이 입학한 순간 여기서 여러분들의 진정이 되는 것 아닌가?

또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에 와서 할 때는 학생회 문서실로 가요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 마음으로 예산 예방치과 교실용 처음 시작했었다. 작년엔 1학년 입실교수를 앞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물론한정기 다형한지 모르겠지만(웃음) 원장이 되니 한 학년만 신경 쓸 수가 없다. 내년에 입기를 하려고 하면 다시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Q. 입기가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치과대학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예과실을 다시 받으려면 교과과정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문제를 미리부터 준비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공간이다. 학생 공간도 그렇지만 교수 공간도 급격히 늘었는데 지금 건물은 이를 예상하지 못하고 자여했다.



▲ 학교 건물도 풍사 상황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지면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아직 그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들이야 하루하루 사생활도 별다른 걸 물어보는게가 제일 공간이다. 오늘도 치과장영학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좋았다. 물론 오사카에 올 때까지 가서 장영학에 대해 학생들도 물어라. 그래도 최소한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기를까지도 서로지 연하기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 송근배 서울치과대학장 취임 후의 모습

대표들의 1년을 묻다

홍준환 / 원로 대표

어느 학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이다. 다들 방학이 다가오면서 들뜨고 기쁜 마음이지만, 아직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막중한 임무를 지고 동기들을 위해 지난 1년간을 바쁘게 보낸 각 학년의 대표를 만나보았다.

(모두가 처음이었지만 더욱 특별한 처음이었던 1학년 대표 이연호)



Q. 1학년 대표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A. 처음에 1학년 대표를 맡을 때만 해도 1학년 대표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더욱이 서울에서 공부하는 여자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더욱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두 누, 나, 친구, 동생들이었던 골짜기 신인형 원영희의 많은 조언을 많이 받은 것을 1학년 대표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매우 당혹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할 일지도 모르는 차를 그런 지도에 추종하려고 지지해주는 모습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1학년 동기들을 위해서 한 번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Q. 대표 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A. 가장 힘들었던 것을 꼽자면 아무래도 책임감과 개인적인 일을 조율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과 개인적인 일 중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어느 때는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책임감과 소홀한 면 적 있고, 책임감을 제대로 개인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곤 했습니다. 1학년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책임질 데 비례할 수 있어 두, 저의 동기들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했지만 많이 부족한 면 것 같습니다.

Q. 대표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무 무엇이었습니까?

A. 1학년인 만큼 동기들 간의 화합과 친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학교생활을 하면서 기쁜 일, 슬픈 일, 힘든 일 등 많은 시간을 같이 보

낼 것이라고만 언뜻 서로 알고 생각하는 일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는 동기간의 우정을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지도에 생각보다 많이 있기 못했지만 저의 1학년을 넘어서 제 바람대로 동기들 간에 화합과, 골짜기 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Q. 대표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일무 중에서 어떤 일이 기억에 남습니까?

A. 많은 일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저의 학년에서 1학기 때 두 명의 동기가 유급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두 명의 동기가 다른 동기들보다 생각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유급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앞에서 도와줬다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모두 2학기를 맞이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Q. 마지막으로 동기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A. 처음의 아찔했던 경험은 이미 지나간 지 오래이고, 지금은 동기라는 단어로 통하는 1학년에 된 것 같습니다. 이틀한 저의 말을 들으셨을, 지금까지 잘 배워서 동기 여러분에게 인연 고맙다는 말과, 후배나 저의 일이든 힘들고 안해서 상처 입으신 동기들이 있다면 그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1학년 2학기인 2학년이 되면 그 때는 대표 이연호가 아닌, 동기 이연호로서 조금 더 동기들과 가깝고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많이있으면 좋겠습니다. 2학년 때도 지금과 같이 1학년 대표단 일에 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고 싶습니다. 앞으로 꼭 스카프만 이 말을 해서 좋은 기억이 남길 바랍니다 고 싶습니다.

(정신없는 2학년 생활, 이보다 더 잘 이글 수는 없다. 2학년 대표 나지호)

Q. 2학년 대표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A. 저는 1학년때부터 대표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대학교 때는 형사들의 형애에 많이 소홀했지만, 형님 남들이 사라는 것만 하면 지도자, 이끈자임을 통해서 사할 것 같고 사내, 나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고 싶었고, 형애 제 스스로도 실업에 있어 좀 더 많은 것 을 알고 싶었기에 1학년때부터 대표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 대표 선출 때도 나왔었지만, 좀 더 객관적이고, 무심할 일 있어야할 동기에게 맡겨졌고, 2학년이

되어서 다시 한번 더 대표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대표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Q. 대표를 하고 싶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데, 그 때문에 여유를 갖지 못해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까?

A. 대표라는 지도자라는 책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부담감이 없었으니, 다른 동기들이 수업과 실습을 마친 후 자장 놀라 마음 을 이끌고, 형애 제와도 수고할 수 있던, 예로는 2학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만큼 다르게 많은 실습들이 있고, 그 실습의 양이 붐을 넣기는 것이, 많이 배워보는 것이 새로 도전의 일이라 요. 이 일들을 보면 학교생활을 하다가 하기 때문에 항상 남들 보다 조금 더 늦게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실습을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나와 동기들이 필요로 하는 연이들을 챙겨주거나, 주휴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제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을 하였고, 저의 책임이라 여겼기 때문에 애써 나, 행동한 것 같습니다. 모든 부하직원 사내에서부터 저의 일을 많이 도와준 것이 매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맡아 다 시 한번 학과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Q. 2학년 대표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무 무엇이었습니까?

A. 제가 생각하는 2학년 대표의 역할은 소홀했습니다. 2학년은 1 학년 때와는 달리 많은 실습이 있고, 그에 따른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생활의 중요성을 학생이나 동아리 회장 부회 장 등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짐을 해내려다 달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2학년 생활에서 서로를 도와주고, 도와 2학년 을 잘 보내기 위한 생활의 순환과 이끈자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항상 동기들의 이끈자에 구애되어 노력 하였고, 어느 누구에게도 이끈자 지우실 일이 부끄러워 일을 지 려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Q. 내년 2학년 대표에게 배우고 싶은 점이 있습니까?

A. 2학년 대표는 좋은 일이 많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어떤 일을 배우려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저의 말은 많은 학과가 최선을 다하고 많이 역할 하도 있습니다. 그렇면 동기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이것이 학과를 나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면도 앞에서 이야기 한 동기 간의 소통에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 해야 합니다. 생활의 모든 요구조건을 다 들어 줄 수 없기 때 문에 대표 스스로가 생각하여 좀 더 동기들 위한 일을 해줘야 이-년 동기 관계의 화합을 통해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가장 중 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2학년 대표라는 지도자 역할은 쉬운 것만 아닙니다. 형애 제도 많은 것이고, 후회할 때도 있을 것입 니다. 하지만 나중에 지내고 나면 좋은 추억이 될 것이고, 앞으로 저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일거수들이 될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동기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A. 누구나 이야기하는 힘든 시간인 2학년을 이렇게 아무 할 일 을 할 배워서 동기 여러분에게 많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 습니다. 2학년은 제게도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였는데, 다들 실습이라 공부하는 바쁜 와중에라도 저보고 고맙습니다. '친애 바-리고 말하든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단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대표단이 아니었다면 지난 1년간의 많은 일들을 해주시고 있었을 거예요. 모든 그 학년도 대표단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준 동기들 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1년동안 동안동안에 어떤 것만 일도 많았지만, 중요한 것 바 로 '지금' 믿어 줍니다. 아직 학과 대표단으로서 조금의 시간 이 더 남았지만, 마지막까지 서로를 잘 이끌어주어 유쾌하게 이 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1학년 대표단 (김영하, 채우석, 최희준, 최태훈)이 화이팅입니다!!



<언제나 즐겁게 학교 생활을~! 3학년 대표 이종원>

Q. 대표를 하기로 마음먹은 계기가 있으세요?

A. 주변에서 한창씩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관심이 되어있어서, 제 학교만 의지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담당 학교로 갔고, 학교를 찾아가는 상황이 되어 왔어요. 저와 같이 했던 디프런들이 다음 해를 준비하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Q. 어떤 일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 1학년 때는 이론적인 것을 많이 배웠던 3학년은 병행에서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배우게 되는 단계라 생각했습니다. 차라리사로서는 첫 경험을 배우는 단계라 생각해 그때 생활을 무사히 잘 마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었나요?

A. 첫날 생활도 물론 좋았을 거예요 많이 남았던 아무래도 디프런들과 같이 출퇴근을 준비하고, 출퇴근을 가서 교수님과 동기들과의 첫 인연 추억을 만든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수학 여행을 많이 가면서, 이런 여행만은 기억에 많이 남고 재미있었던 추억 많이 있습니다. 60여명의 동기들과 인성의 디자인까지도 모르는 출퇴근을 준비해서 한창으로 적응할

도 느꼈지만 디프런들과 좋은 여행을 준비해서 즐거웠던 거 같습니다. 특히 공기를 뛰어들고 싶은 노력으로 인해 만족스러운 출퇴근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다시 한 번 가고 싶어요.

Q. 내년 디프런에 당부 할 한마디를 한마디?

A. 3학년 디프런이 더 디프런에 대해 기간은 없지만, 하는 일은 온전히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병행에 들어오기 때문에 적응이 되지 않아 될 것 같을 때 많이 들어오게 생각해 디프런은 배우려는 동기들을 많이 데려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동기들을 잘 데려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일도 생활 동기들에게 많이 맡기면 됩니다.

Q. 마지막으로 동기들에게 한마디?

A. 세기 디프런을 처음 꾸리 나갔을 때 모르는 '출근' 학교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제와 디프런은 직업을 맡기신 것도 있지만, 처음 학교 잘 따라주세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느도 무리하게 캐고 싶어요.~" 남은 3년의 생활동안 어떤 출퇴근도 잊고 있지만 다음 해에서 즐겁게 학교 생활 할 것 같습니다.~ 다음 30일입니다. 여학생 30일~!!



<학교를 대표한다. 4학년 총대표 송영우>



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정말 감사하게는 한 요일도 할 수 없었던(?)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받았던 출퇴근이었던 만큼 많은 해주시는 일에 있어서 어머님이 잘 부탁드립니다. 저 혼자서 모든 일을 맡아서는 안되고, 함께 일하는 총 디프런들과 함께 모여 지금까지 무사히!! 잘 마무리 잘 끝났습니다. 그런 안에서, 저와 함께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총 디프런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고맙은 존재입니다. 또한 주변에서 항상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동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순진하고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Q.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A. 4학년 총대단이 하는 일은 참 많았습니다. 그만큼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학년 디프런과 같이 총대단원 생활 수도 있고, 각 디프런이 하는 역할도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병행 생활과 ST 캐시스를 무사히 잘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컨설팅하고 하고, 병행에서 저희 학년이 담당하는 기능성 장소나 담당하는 일들을 위한 스케줄을 짜야, 수업도 잘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로서 전담 할수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로서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약 60일 밖에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동기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총대단이 공부 방법을 제시해주고, 대학 준비를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나오면, 뭐든지 할수있다고 하는 공부 일기로 참여하면 후회합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배우고, 제 실마리 알려준다면 좋은 결과도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A. 많이 준비 있었던 총대단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실내'라는 행사입니다. 준비 기간이 차라리 더 길었던 총대단 모임이 2주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면서 1기 학교의 총대단원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이를 성공시켰습니다. 4학년과 무사히 마무리하는 목표는 전 1기 학교가 가진 공통의 목표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기 학교 총대단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것인 만큼 행사도 준비하는데요, 저희 학교 실내는 올해 4월에 열렸습니다. 다수 소자 한 고집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실내는 모임을 전담으로 1기 학교와 저희 총대단원들이 함께 함께 하였습니다. 소수를 맞추고 싶어서 꼭 지켜야 하는 디프런 무사히 진행 하려면 한 사람이 약 4-5명의 소수를 가진 학생으로 좋은 시간동안 참석해서, 저희 총대단원들 술을 잘 챙기려는 동기도 있었고, 아무리 술을 잘 마시는 동기에게도

많은 시간 안에 다뤄야 하는 취지 많은 양이였기에 다음 해에 고생할 거예요 남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술만 마신다고 해서, 총대단 일을 할 때 있어서 고생했던 것들을 서로 많이 배우고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걸로 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좋은 생활이었던 소중한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숙사로도 가져가는 함께 일하는 동기 누나와 형님에게 헌정이 되어있는 다음과 사랑받는 다음을 표현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Q. 내년 총대단에 당부 할 한마디를 한마디?

A. 일단, 일단 전이하는 건 실용을 일러야하는 무사스러운 자리인데도 다른 동기들을 위해 일하고도 고통받은 후에 총대단 분담에 감사되었고, 행사하는 달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 기억으로 4학년 1학기 실용이 막 시작될 때, 병행 case 수도 많았기 때문이었고, ST case도 시작되어 해서 정신없고, 또 그다지 부족함이 있어 주어진 4학년 생활을 많이 가지 병행에서 사생활이 동기들이 가장 힘들고 총대단으로 시작될 듯 했어요. 이럴 때 일수록 총대단 애들한테는 출퇴근 잘 도와주세요 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총대단 애들한테는 누구의 손에 의해 선출되었고, 누구를 총대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 예전 선출결과 교수님들을 두루하여 일을 하고있고, 내가 누구를 위한 디프런을 고민하고 하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대단 애들한테 많이 도와주는 단지는 사생활이 바르 총대단원 동기들이 좋은 디프런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선출결과 교수님들을 고민해서 얻어오는 행복을 해서는 안 되고지만,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애들한테 좋은 동기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4년을 함께 한 동기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A. 이기 가족들을 제하고는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한 우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4학년은 2년 동안은 한 번뿐이어서, 한 번 중거의 디프런의 생활을 함께 한다는 건 정말 보람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런 좋은 추억을 만든 친구들 함께 많이 된 것 같고요, 이제는 가족과 같은 우리 동기들과 한 공간에서 다시 한 번 함께한다는 것은 정말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고, 이제 약 30여일 밖에 남지 않았어요. 남은 시간 더욱 더 친한 친구들 같이해서, 서로 잘 도와주며 공부해서 제 우리 모두가 자기와 함께 좋은 결과 일기를 소장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모두 잘 마무리 하시고요, 내년 한 두번씩은 저희 디프런에서 많이 배워, 앞으로도 가족처럼 친한 친구들 같이 하시고요, 이거를 많이 애들한테서 하고 싶었던 말 전해서 전해주고 싶습니다. 내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역시 디프런이 함께 할 것입니다.



한미 FTA 이후 의료계의 변화

홍기영 / 연세대학교

지난 11월 22일 한미 FTA에 대한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일주일 후 이명박 대통령이 협정문에 서명을 하였다. 계속해서 반대시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동안 뜨거운 논란이 되어왔던 한미 FTA는 일단락되었다. 이제 2달 후엔 이 비준안이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 특히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볼 시점이다.

직업입계

한미FTA 허가특혜 연계제도
 특혜권 소용
 판매허가증지

FTA의 '허가특혜'가 특혜 연계 조항에 의해 특혜권을 만들어 식품과 약품안전성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때, 이를 특허권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이에 대해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특허권 재조 및 시판을 금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약을 거의 만들지 못하는 우리나라 제약업체의 특허권 시판이 높아지게 되고 그 사이 비준 오리지널 약을 사게

하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물론 다국적 제약회사에 비해 턱없이 경세한 국내 제약업체에도 크나큰 타격을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본래도 특허기간 만료 전에 특허권 시판이 불가능하고 특허기간 만료 후 시판은 허가가 지연되지 않을 것이며, 특허침해 소송 시 특허권 시판은 소송 완료 시기가 아니라 약품 개발을 통해 일정 기간(12개월로 제한을 받음) 정도만 잠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국적 제약사들이 오리지널 약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하여도 특허를 연장하기 위해 소송이나 제법 특허를 사들여 등록하는 특허권장만 (에어그리드 전략)을 남발하면 특허분쟁 빈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한 약가 결정 과정에 있어서 현재는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연으로 합의 처리하던 기존 방식이 바뀌어 "특별협약 검토 기구"를 두게 되고 다국적 제약회사와 국내 제약회사도 계약하게 된다. 당연히 제약회사는 제약업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직업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은 현재에도 공단재정이 부족하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약가를 어릴수록 줄여야 할 터인데, 약가상승으로 인하여 점점 그 적자폭이 커지게 될 것이다. 이는 아래의 민간 의료보험 확대에 더불어 영리병원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데 쓰일 지표로 사용될 공산이 크다. 치과계에서는 상대적으로 환원된 약가를 처방하므로 약가상승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나 앞으로 나올 신약에 대한 보험 적용 가능성이 점차로 낮아질 경우 환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한 차등적 처방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

영리병원

한미 FTA에 영리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6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이다. 정부는 상업적으로 이곳에 영리병원을 설치해 보고, 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공한 환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이러한 영리병원 제도를 철회할 수 있었다. 다들 알고 보편의료 서비스는 미자유무역 지역(역전지) 포함: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 개방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랄 수는 있으나, 이를 되돌릴 수 없는 국면이 적용되지 않아, FTA에서 협정은 상의 구색적 의무 적용이 면제되고 협정문에 따라 영리병원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다시 되돌릴 수 없다. 다만 보건의료 서비스 중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내용은 제외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는 FTA의 구색적용 자동적으로 받게 되어 영리병원 또한 될 수 있다. 정부는 미자유무역 협정을 통해 건강보험 담보시장에 무력화되거나 영리병원의 수송률이 900만명이 될 것인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와 6개 경제자유구역은 결코 일상에서 먼 지역이 아니라 주민이 구와 변혁의 결과 적은 곳이기 아니다. 대구시 내에도 대구 스타디움 근방 지역이 대구광역경제특구 산하 의료지구로 지정해 있는데 몇 년 이내로 영리병원이 집중적으로 들어선다면 기존 의료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치과계에서도 U도 네트워크를 비롯한 몇몇 자본을 투입한 대형형 태의 치과가 특세하고 있는데 FTA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시킬 수 있는 촉매가 될 것이다. 이는 국내 자본 뿐 아니라 선진 의료를 표명한 미국 자본의 치과도 심복할 법한이 아닌않기 때문이다. 2009년 미국의 영리병원 기업 'Centaur'은 캐나다 정부가 기업 이익을 침해했다며 북미 FTA의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Investor-State Dispute) 조항에 따라 국제투자재판에 제소한 일이 있다.

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



Centaur은 캐나다 국내법인 국민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건강보험 서비스 시행을 규정함으로써 Centaur의 정당인 기업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의 의료정책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의의와 유사하게, 정부가 결정된 의회에 의회는 의료비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Centaur사의 캐나다 정부에 대한 소송사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료시설 설립과 관련한 사안이며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경우 보건복지 서비스를 개방한 사안으로 한미 FTA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제개혁에서 정부가 특정 질병에 대한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게 될 경우, 민간 보험회사들의 시장규모는 축소하게 된다. 이 경우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축소로 이루어진 ISD를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유보조항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위 사안처럼 보건의료 서비스의 금융서비스가 중립적 경우 협정문 자체에서도 명확한 구분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한미 FTA가 체결된 후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미국 보험회사는 한미 FTA 협정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의관을 표명했고 삼성생명이나 대한생명 같은 국내의 대형 보험회사도 마찬가지다. 치과계는 타 의료분야에 비해 우 진로활동들이 비 보험분야가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민간 의료보험의 확대가 수월하다. 차원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제도도 있으나, 그러나 의사로서의 본심을 지킨다면 경제적 이유로 가난한 이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 민간보험의 확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의사로서도 자본에 스스로 얽매어 수입에 따른 진료 결정이 이루어지는 일부 네트워크, 치과들의 진료행위를 모두가 집중하는 불행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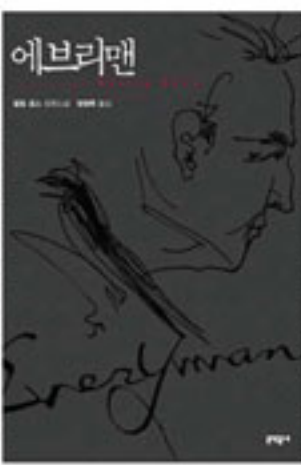
쉴쉴한 감동의 미학

홍기현 / 권오진

영원, 최고영향을 지닌 정신성이 지나쳐보니 어느덧 기술에서 거물로 남아가는 지점이 있다. 허브가 보이는 일상 가운데, 가끔은 차분히 베풀고, 종종 일찍을 감성하면서 흘러가는 시간을 희미해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번엔 소극할 만큼은 차갑고 건조한 모습 남겨놓을 뿐, 무감정히 볼 수 있는 게 아닌, 일차 한 편이다.

결정된 감정엔, 다소 무감정하지만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앞으로 소극할 때처럼, 그리고 리스름 두 작품의 공통점이다. 특히 리스름은 같은 저류의 단편소설을 읽고 이후에 보던 스미의 작품에서를 알아야 오는 재미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작품을 모두 차치하면은 도서에서 구하여 읽으시 좋을 수 있다.

살다가 병들고 늙어죽게 된다는 것? 에브리맨 - 저자: 윌리엄스



윌리엄스라는 소설가 윌리엄스 소설엔 대표작을 읽다나서 마지막 장을 읽었던 거꾸로 수 없는 굉장한 감동을 느끼게 된다. 마지막까지 미소를 밝히지 않는 모험사(에브리맨) 한 주인공의 정해시오프로 소설은 시작된다.

이 후 이 소설은 그 주인공이 살아오면서 죽음과 마주한 순간들을 중심으로 그의 삶을 재구성한다. 그가 목격한 주변사람들의 죽음을, 그리고 그가 갖가지 염으로 인해 갖은 죽음의 그비를 갖는 순간들을 통해서 그가 살아온 시간들이 펼쳐진다. 말하지만 죽음이라는 소재를 이용해 실의 아무도 처한 데 대한 내용을 담은 소설이다.

특별히도 읽은 한 사람의 살다가 읽었고 살아죽는 이야기를 이보다 이 소설이 보여주는 수 없을 것 같은 이 소설을 통해서 윌리엄스는 인간의 삶,

혹은 죽음 자체를 다루고 있다. 완벽하고 허무한 죽음으로 말하는 이야기 가운데는 아래의 대사를 같이 숨들 때 위안이 되고, 감성적인 빠지지 않고 담담히 살아있는 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생명을 잃은 말에게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현실을 다시 만드는 건 불가능해. 그냥 오는 대로 받아들여 버리고 서서 오는 대로 받아들여라. 다른 방법이 없어."

그에게 그럼고살아 오는 저자들이 영감이 되었는지 여하나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한다.

"영감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살아서 있을 뿐이지."

결론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허사나 과장 없는 담담한 윌리엄스의 문장엔 읽는 독자들에게 서늘한 감동을 준다.

심장이야, 그는 이제 없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스스로 살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디에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침대에서 두려워하던 바로 그대로.

이런 문장으로 읽을 때는 허브처럼, 아무도 흔들려도 불구하고, 오묘처럼 생생한 남자에 대가의 훌륭한 문장이 있을수록 어울리는 이 소설은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라 강력 추천 수 있다.

욕망의 이기주의? 라쇼몽

류노스케의 단편 소설 "리스름"을 영화의 배경으로 설정하고, 류노스케의 또 다른 단편 소설 "일출 속"이라는 소설의 이야기를 풍자적으로 이용한 영화 리스름은 류노스케에게 대상을 향한, 20세기 최고의 영화들이 언급될 때마다 늘 빠지지 않는 대목이다. 소설 리스름과 영화 리스름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작가의 감독의 인생과 작품이 연결성을 가진다. 소설의 작가인 류노스케는 진실로 생을 마감했지만, 감독 아카리라는 자살극을 위한 열이나 살아남아 영화와 작품을 일으키며 오해 살았다. 이 둘의 이러한 인생관이 두 작품의 핵심에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 소설 리스름에서는 인간에 대한 고통이 결국 해산당하는, 인간에 대한 이기적인 모순만을 보여주는데 반해, 영화 리스름에서는 그러한 인간적 이기적인 모습과, 허니의 삶인 시간이 비 사람이 서로 다른, 각자가 원하는 대로 화해하여 진술하는 모습을 통해 진실은 그 어디에도 있음을 보여주면서, 영화 일미에 아이를 데아가 볼 꾸우하는 나루미의 모습을 통해 이기적이지만 어떤 사정에 대한 고통은 필요하고, 다른 이와 어울려 살아 가는 삶을 볼 수 있는 일말의 희망을 준다. 그래서 이 영화가 냉소적이기 보다는 생애 대한 대담과 리스름을 지는 작품이라 말할 수 있다.



류노스케의 단편 소설 '리스름'을 영화의 배경으로 설정하고, 류노스케의 또 다른 단편 소설 '일출 속'이라는 소설의 이야기를 풍자적으로 이용한 영화 리스름은 류노스케에게 대상을 향한, 20세기 최고의 영화들이 언급될 때마다 늘 빠지지 않는 대목이다.

영화 감독: 구로사와 아카리 / 원작자: 아루타가와 류노스케



둘거리 못 단 아카리 모험담에도 빠지지 않는 뛰어난 영감이야 영화 리스름의 작품성을 이해하고 있다. 1950년대의 흑백영화라는 제한 속에서도 그들자를 이용한 흑화(아카리) 신의 학의 대어를 보아주거나, 지금도 "리스름 호기"로 불리는 허니의 시간을 여러 사람이 시간으로 재현하는 풍류시작 기법을 이용하는 등 뛰어난 연출력을 보여주면서 지금도 많은 영화에서 리스름의 다양한 기법이 쓰이고 있다.

영화 리스름을 통해 아카리라는 것은 자신이 보고자 하는 대로 보이는 것이고, 결국 진실이라는 것도 자신이 선택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된다. 특히 상대성이 강조되는 거대한 실들이 복잡하게 얽히는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의미들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

